

세계식량위기와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신흥안보로서의 식량안보 관점에서

김가람¹⁾

I. 서론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세계식량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반복되는 식량위기이다. 식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삶, 문화, 정체성의 기초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으로 식량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존권과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안보 영역이다. 식량 문제는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단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며 모든 안보 이슈들과 상호 연계되었다. 이에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해지면서 국가를 비롯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포함되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어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민병원, 2007; 박광기, 2016). 즉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과 관리, 통제를 위하여 글로벌 수준에서의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Gilbert and Morgan, 2010, ERS, 2012; UNDP; 2016a).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세계식량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관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신흥안보’ 위기 발생을 막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와 함께 새로운 국제정치 ‘안보 패러다임(security paradigm)’인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개념을 통해 세계식량위기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위자, 구조 및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는 동태적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식량안보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 신흥안보 및 식량안보를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다룬 이론들을 원용하여 연구모델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2007/08년, 2010/11년, 2020/21년 식량위기 사례를 신흥안보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사례연구 결과들을 종합, 요약하고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식량 문제 해결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마무리한다.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1)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국제관계전공 석사과정생. 이메일 주소: rkfkatitn@naver.com

식량은 칼로리와 영양을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곡물로 한정된다(사회진보연대, 2008). 이때 곡물 연도는 전년에 과중한 것이 다음 년도에 생산되어, 2년에 걸친 곡물 연도를 기준으로 수급이 결정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렇게 정의되는 식량에 대한 연구는 식량위기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인구 증가, 석유 에너지 수급 문제와 불안정한 가격 변동성, 바이오에너지 원료 사용 증가, 곡물 및 해외토지 투기, 식량원조, 정상적인 국제무역 과정 회피, 제한된 운송과 저장 및 처리 능력으로 인한 식량 가치 사슬의 혼란, 달러화 약세²⁾, 식량 가격 상승, 육류 중심 식생활로의 변화, 물 부족 현상,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식품 생산, 사회·경제적 불평등, 전쟁, 국가의 시장 개입, 개도국들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 독점적 세계식량시장 구조, 기후변화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었다(Devereux, 2001; Domanski and Heath, 2007; Burch and Lawrence, 2009; Brinkman and Hendrix, 2011; Murphy et al., 2012; Hendrix and Salehyan, 2012; Brown, 2012; Clapp and Helliner, 2012; Raleigh and Kniveton, 2015; 김상배, 2016; 조정인, 2019).

이렇게 수많은 요인들에 기인하여 발생한 식량위기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inot, 2010; Brinkman and Hendrix, 2011; Berazneva and Lee, 2013; Hendrix and Brinkman, 2013; Bellemare, 2014; Todd, 2014; Raleigh and Kniveton, 2015). 특히 만성적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서 소요, 폭동,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이웃 국가로 확산시킬 위험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Lagi et al., 2011; Winders, 2011; Maystadt et al., 2014; Breisinger et al., 2015; Bush and Martiniello, 2017). 이는 식량 불안과 정치적 갈등이 모두 저발달의 증상이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에 기인한다(Collier et al., 2003). 즉 식량위기가 정치체제 변동, 시위, 폭동, 집단 폭력, 시민사회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또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결정적’ 원인으로써 작용하는 것이다.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식량안보(food security)’로 특징지어졌다(이명훈 외 2인, 2012, 김상배, 2015). 식량위기의 다원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인 ‘신흥안보’ 개념을 통하여 식량안보를 대처하고 관리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학자별 상이한 관점으로 인하여 각기 다른 식량안보 확보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식량 소비와 공급 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주장(Rosegrant and Cline, 2003; Schmidhuber, 2007; Godfray et al., 2010; Calzadilla-Tol, 2011), 재고량 확보의 선행을 강조하는 주장(Godfray et al., 2010; Raleigh and Kniveton, 2015), 자유무역이 식량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Anderson and Tyers, 1990; 최세균·권오복, 1991; Roe and Gopinath, 1996; 이재욱, 1999; Anderson, 2000; Sumner, 2000; Besley an

2) 대부분의 상품 거래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자들이 환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달러가 약하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d Persson, 2008; Schanbacher, 2010), 식량 시스템이 자유무역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조가 형성되어 식량수입국들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Greenfield, J. et al., 1996; Krissoff, B. et al., 1990; Ohga, 1998; Timmer, 2000; 김호탁, 2003; 유종선 2013, USDA, 2017)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은 식량안보에 대한 관점은 식량수출국, 식량수입국 행위자에 국한되어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국가 내 혼란을 야기하여 더 심각한 수준의 식량안보 위협과 세계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할 방향이다. 즉 그 동안의 식량위기에 대한 연구들은 일차원적 차원에 머물러 그 복잡한 특성에 대한 미흡한 이해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신형안보와 식량안보, 식량위기

신형안보(emerging security)는 ‘전통안보(traditional security)’ 및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모두를 포괄하는 적극적인 안보 연구 개념으로,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³⁾과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⁴⁾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신형안보는 “미시적 차원의 ‘개별안전(individual safety)’ 문제가 양적·질적으로 커지면서 거시적 차원의 ‘일반안보(general security)’ 문제가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김상배, 2016). 신형안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갖는다. 첫째, ‘X-이벤트(extreme event)’의 형태로 위협이 발생한다. 둘째, 위협 발생의 주체로서 인간 외의 사물·기술 변수 등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실재하는 위협이면서도 구성되는 위협이다. 즉 이러한 특성을 갖는 신형안보 차원의 위협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한 결과인 것이다(김상배, 2015).

신형안보 중 대표적인 영역 중 하나인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는 1974년 세계식량회의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 해당 회의에서 식량안보는 식량 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을 위한 공급 측면에서 주목되었다(안득기, 2008). 이후 식량 사정이 점차 호전되어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이하 UR) 협상에서는 생산이나 공급 문제가 아닌 분배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성(access)’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한편, 탈냉전 및 세계화에 따라 복잡한 관계 형성 및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인간안보(human security)’⁵⁾의 기초에서 개최된 1996년 FAO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이하 WFS)에서는 식량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수요자의 구매력이 식량안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어 ‘가용성(availability

3) 복잡계(complex system)는 “수많은 행위자(node)들이 상호작용(link)을 통해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나타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김상배, 2013).

4)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은 복잡계 이론을 근거로 하여 네트워크 자체의 형성과 작동과정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다. 네트워크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노드(node)들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연결된다(Castells, 2004; 김상배, 2013).

5) 인간안보는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위해보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UNDP, 1994).

ty), ‘접근성(access)’, ‘유용성(utilization)’, ‘안전성(stability)’ 등의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이에 식량안보는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음식 섭취의 필요성과 식량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이 풍부한 식량에 언제나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태”로 정의되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신홍안보 및 식량안보 개념을 통해 식량위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순히 미시적 수준이었던 식량 문제는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글로벌 차원의 식량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전례없던 ‘X-이벤트(extreme event)’⁶⁾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즉 복잡한 네트워크 시대를 배경으로 부상하는 식량위기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타 이슈들과 연계하여 또 다른 신홍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식량위기에 대한 정의는 거의 일치되어 이루어졌는데, ‘식량, 특히 곡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Frankel and Rose, 1996; 김태훈·승준호, 2009, 김명환 외 2인, 2012; 한국은행, 2012; Margulis, 2014). 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식량이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는 하위 20억 인구의 ‘화폐’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곡물의 가격변동이 전체 식량의 가격변동 폭보다 커 가용성, 접근성, 유용성, 안전성 측면에서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무정부 상태가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협력이 예외 없이 발생하여 국가들은 제도를 통해 집단행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에 의하면, 국제제도는 행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여 협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과 협력을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Keohane and Martin, 1995). 또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행위자들이 국제제도를 만들도록 하고 상호지속적 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이 또 다시 협력을 선택하도록 하는 고리를 형성한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모든 형태의 안보 문제 영역을 다루고 기존의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응이자 문제해결 방안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등장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차원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글로벌 협력을 통해 통합적 대응 및 관리,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UN, 1995; Gordenker and Weiss, 1996; Knight, 1999).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식량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형성된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는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발

6) X-이벤트는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아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엄청난 종류의 붕괴(avalanche), 격변(catastrophe)으로 나타난다(Casti et al., 2011).

생하는 식량 관련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참여, 협력하여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일련의 제도, 규칙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식량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및 관리,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Filder,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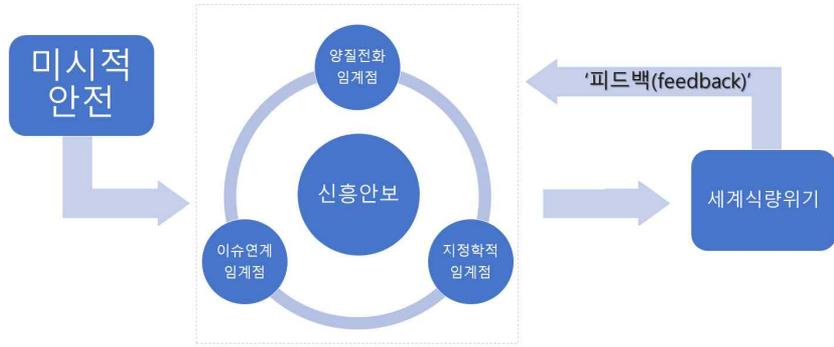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가 핵심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AO는 회원국 194개, 준회원국 2개, 회원기구 1개로 구성되어 기아와 식량 불안정, 인류의 영양부족 등의 극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FAO는 식량 문제 확산 방지를 감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글로벌 식량 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 행위자들의 협력을 유도하며 식량 관련 제도들을 관리하는 등의 리더십을 제공한다(박영택, 2020). 이러한 리더십 아래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식량 관련 정책들을 개발 및 관리, 규범과 식량 관련 자료들을 축적, 연구, 분석하는 공공재 산출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기술협력, 기금조성 등을 제공하며 행위자들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의 장을 제공한다.

Ⅲ. 연구모델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신홍안보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원용하여 사례비교 분석을 위한 연구모델을 제시한다. 먼저 신홍안보 이론에서 설명하는 ‘3단계 사다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 단계를 구분하는 ‘임계점(critical point)’은 미시적 안전이 거시적 안보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단계별로 발생하는 순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중첩되거나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고 역행할 수도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홍안보의 3단계 사다리 개념을 아래 그림과 같이 재구성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임계점에 대해 설명하자면 ‘양질전화 임계점’은 이슈 영역 내에서 신홍안보적 안전사고가 양적으로 증가하여 질적으로 변화되는 지점이다. ‘이슈연계 임계점’은 어느 한 신홍안보 이슈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가 다양한 분야의 신홍안보 이슈들과 질적으로 연계되는 지점이다. ‘지정학적 임계점’은 양질전화 및 이슈연계를 통해 발생한 신홍안보 이슈가 전통안보 이슈와 연계되어 국가 간 분쟁 및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명실상부한 국가안보로 전개되는 지점이다.

<그림 1> 식량위기 발생과정



출처: 김상배. 2016. “신흥안보의 미래전략.” 재인용.

다음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및 특성을 통해 독립변수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평적으로 협력하며 규범 및 규칙을 포함한 체도를 설정하는 관리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위자와 체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독립변수를 설정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독립변수 및 분석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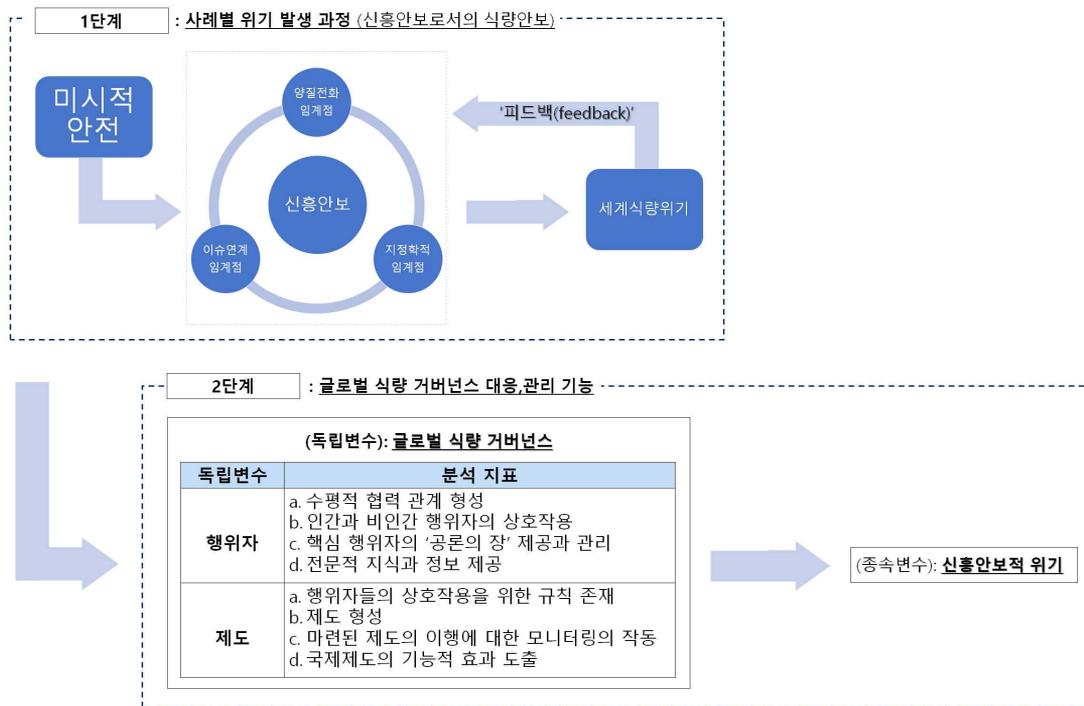
독립변수	분석 지표
행위자	a. 수평적 협력 관계 형성 b.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상호작용 c. 핵심 행위자의 ‘공론의 장’ 제공과 관리 d. 전문적 지식과 정보 제공
체도	a.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규칙 존재 b. 체도 형성 c. 마련된 체도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의 실질적인 작동 d. 국제체도의 기능적 효과 도출

구체적으로 독립변수를 평가하는 각각의 분석 지표에 대한 기준 및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행위자’에 관하여 (a)‘수평적 협력 관계 형성’은 주권의 부분적 위임이 이루어졌고, 어느 한 이해관계자에게 치우치지 않는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 (b)‘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상호작용’은 기술, 물체 등 과학 기술들을 행위자들이 적절히 이용하여 협력하는 수단으로써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 (c)‘핵심 행위자의 공론의 장 제공과 관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FAO가 공식 회의를 시의 적절하게 개최했으며 그 논의의 주제와 관련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 (d)‘전문적 지식과 정보 제공’은 지식과 정보를 어느 한 이해관계자가 독점하지 않고 평등하게 행위자들에게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공유된 정보가 체도를 만들고 이행할 때 도움을 주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

다음으로 ‘제도’에 대해서는 (a)‘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규칙 존재’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이를 조정하는 규칙이 존재하고 실질적인 제약 조건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 (b)‘제도 형성’은 기존의 제도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이 이루어졌거나 새로운 제도가 정립되어 공식적으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 (c)‘마련된 제도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의 작동’은 형성된 제도에 대해서 각 행위자들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 (d)‘국제제도의 기능적 효과 도출’은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를 통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고, 또 그에 대한 관성으로 계속해서 협력이 이루어져 새로운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작동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

이와 같은 독립변수 및 분석 지표에 대한 판단 근거는 FAO 공식회의를 비롯한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 내 행위자들의 주도로 열린 공식 또는 비공식 회의에서 참여 행위자들과 제도 형성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평가한다. 또한 식량위기의 주요 객관적인 지표인 식량 가격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Group)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다.⁷⁾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 응용하여 사례분석에 적용할 연구모델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 모형



7)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곡물 선물가격이 국제 곡물 거래 기준 가격을 형성하며 전 세계 여러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곡물 거래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IV. 사례연구 분석

1. 2007/08년 세계식량위기

1)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7/08년 세계식량위기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기간으로, 그 이전 발생한 식량가격 급등 사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 상승 폭을 보인 사례이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⁸⁾가 발생하면서 자산 거품, 디플레이션, 재정 위기, 실업 및 고용불안 등이 미국의 거시적 안보 문제로 전환되었다(공민석, 2018). 그와 함께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안보 위기가 높은 상호의존 경제 시스템을 배경으로 확대되어 글로벌 공황의 장기화가 발생하였다(Bill Bonner and Addison Wiggin, 2006). 즉 경제 문제가 양질전화와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일반 안보로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또 다른 신흥안보 영역들과 이슈연계되어 더욱 복잡하고 심화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했고, 그에 대한 대체재로써 바이오에탄올 소비가 급증하였다. 그 영향으로 주식용 곡물의 생산이 줄어들었고 운송비 및 생산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식량 가격은 더욱 상승하였다. 이에 식량 및 에너지 시장에 투기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불안정한 구조가 형성되었다. 복합적 요인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2007/08년에는 세계 식량가격 지수(Global Food Price Index: 이하 GFPI)⁹⁾가 2000년대 초반 90포인트에서 2008년 199포인트로 약 80% 이상 오르는 등 거의 모든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하였다.

2)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 사후조치적 대응과 관리

이 상황에 대해서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는 주요 회의를 비롯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세계식량위기 해소에 실패하였다(Lang and Barling, 2012).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대응 및 관리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기아인구는 2006년 8억 5천 명에서 2009년 10억 명으로 증가하였다(FAO, 2008a, 2008b). 또한 행위자들의 이기적인 이익 추구를 규제할 제도의 미비로, FAO가 조사한 77개국 중 약 84%의 국가가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여 세계시장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von Braun, 2008; World Bank, 2008, 2009). 국제 물가가 이미 높은 국면에서 이와 같은 조치는 결국 소비자들의 ‘패닉 매수(panic buying)’를 발생시켰고 세계식량위기와 각국의 식량안보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서종석, 2008). 한편, 해당 경험으로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는 작금의 한계를 깨닫고 사후적 차원에서 보완을 위한 노력을

8) 서브프라임(subprime)은 프라임(prime)의 아래 있는 비(非)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모기지는 차주가 대주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담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또는 이 저당권을 표방하는 저당증서, 또는 이러한 저당금융제도를 의미한다(두산백과, 매일경제용어사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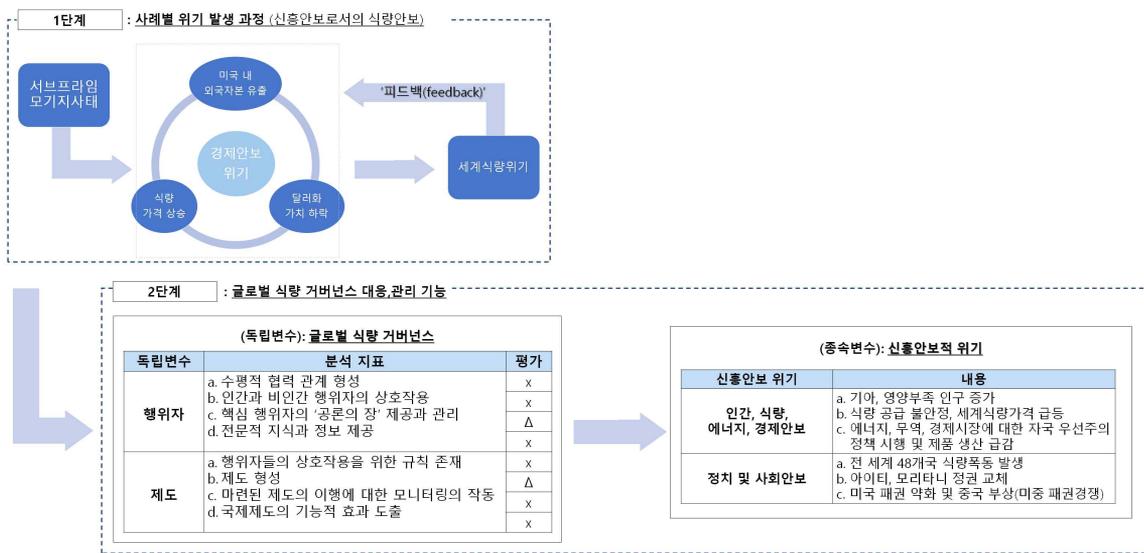
9) 국제 시사저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에서 2012년에 개발한 지수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표이다.

시작하였다.

3) 결과: 정권 교체, 중국의 부상,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

세계식량위기 해소의 실패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의 48개국에서 식량 폭동¹⁰⁾이 발생하였고, 사회적 위기 및 정치적 갈등은 증가하였다(Brinkman and Hendrix, 2011). 아이티와 모리타니에서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으며,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국제체제의 변동이 일어났다(최영중, 2012; 김상배·신범식, 2017). 특히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는 정치경제적 리더십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나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에 반해 중국의 경제적 위상은 강화되면서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신흥안보 위기를 불러왔다(Natalini et al., 2014). 패권의 추가적 쇠퇴를 막고자 미국은 아태로의 회귀(pivot),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공식화하였고 신흥국가들을 글로벌 거버넌스 내에 포섭하여 G7에 신흥국가들을 추가한 G20 정상회의를 2008년 11월에 개최하였다(Niall Ferguson and Moritz Schularick, 2007; Rachman, 2011; 공민석, 2018). G20을 통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자체의 정당성과 효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다른 거버넌스 행위자에 대한 기능적 네트워크, 새로운 행위자 참여 및 제도적 수렴 촉진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귀환 및 다자주의의 부흥을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를 불러왔다(White House, 2010; 김상배·신범식, 2017).

<그림 3> 2007/08년 세계식량위기 분석 결과



2. 2010/11년 세계식량위기

1) 배경: 기후변화(라니냐 현상)

10) 식량폭동은 “통제의 손실, 신체적 상해, 재산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폭력적이고 집단적인 불안”으로 정의된다.

2010/11년 세계식량위기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기간으로, 앞선 사례와는 다르게 기후변화에 따른 라니냐라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지난 201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례적인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서 여름철 내내 폭염과 가뭄, 산불이 지속되었다.¹¹⁾ 세계 주요 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기후안보 위기가 발생하면서 작황 악화가 일어났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명분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수출금지 조치 및 수출 쿼터제를 실시하였고, 전 세계 밀 수출량이 2009년도에 비하여 30~40%가 감소하자 2010년 8월 밀 가격이 6월 대비 약 84% 상승, 8월 6일에는 8.68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에 달하였다(조선비즈, 2010.8.10.). 생산 및 수급 문제로 공황에 빠진 세계곡물시장과 함께 들이닥친 고유가의 영향은 에너지 비용의 급등과 곡물 공급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켰다.¹²⁾ 식량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자 또 다시 식량 투기 폭증이 발생하여 세계식량위기를 추동하였다(Olivier, 2010). 즉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가 이슈연계되어 식량안보 위기를 불러왔고,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정학적, 양질전화 임계점을 넘어 세계식량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2)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 미흡한 대응과 관리

세계식량위기 해소를 위하여 2011년 World Bank, IMF 총회에서 식량안보를 우선적인 해결과제이자 핵심과제로 규정하였다(유호근, 2014). 식량수입국들은 '수출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기존 WTO 농업협정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였다.¹³⁾ 제시된 수정안은 가격 변동성의 불안정성을 낮추는 가장 실질적인 조치였으나 식량수입국들 간 의견 불일치로 제도화에 실패하였다(임성학 외 3인, 2007). 그로 인하여 자국 우선주의적 정책들이 계속해서 시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걸프국가(The Gulf)¹⁴⁾들이 식량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또한 해외 농지를 매입하여 농작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David, 2011).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MENA 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입을 대체할 국가를 찾는데 실패하여, 해당 국가들의 시민들은 계속해서 높은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Ardic, 2012). 이를 통해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가 2007/08년 세계식량위기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신속히 대응하였으나, 행위자들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하면서 결국 세계식량위기를 해소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David, 2011).

11) 감시구역에서 3개월 이동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0.5°C 높은 현상이 5개월 지속되면 엘니뇨, 반대로 0.5°C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라니냐 현상으로 판단한다. Ben Ross(2016)에 따르면, 엘니뇨 발생 시, 미국 밀 단수가 3.9% 감소했으나 옥수수, 콩 단수는 각각 4.1%, 5.4% 증가하였고, 라니냐 발생 시에는 미국 밀, 옥수수, 콩 단수가 각각 1%, 9.2%, 4.1%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라니냐 현상이 곡물 생산량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에너지 비용은 2009년 대비 2010년 7월 배럴당 가격이 약 29% 상승하였다(George Joff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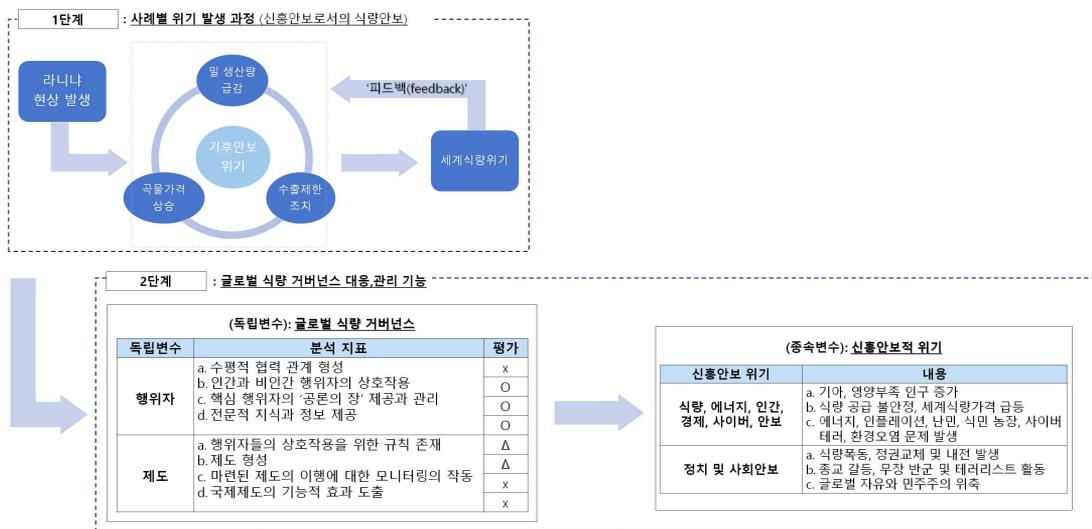
13) 수출제한 조치 도입 시 90일 전 사전 통보, 적용 기한 원칙적으로 1년(특별한 사유 인정 시 18개월)으로 제한하는 등의 이행수단의 내용을 담고 있다.

14) 아라비아반도와 이란 사이 만(gulf) 일대를 가리키며, 연안국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오만 등이다(외교부 참조).

3) 결과: 아랍의 봄(민주화 혁명 및 내전 발발)

그 여파로 MENA 지역 국가들 중 가장 먼저 튀니지에서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으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였다. 튀니지 시민들은 기존에 만연해 있던 빈곤, 실업난¹⁵⁾, 정치적 이념의 부재, 독재 정권의 부패와 탄압 등의 사회, 정치적 문제들에 더해 식량 문제로 생존의 위기에 처하면서 2010년 12월 17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23년간 독재체제를 이어온 벤 알리(Zine el-Abidine Ben Ali) 대통령 축출에 성공하여 민주화 혁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튀니지의 민주화 혁명 성공은 무바라크의 철권통치, 지속되는 계엄 체제에 불만이 쌓여가던 이웃 국가 이집트 시민들을 고무시켰다. 결국 이집트 시민들은 2011년 1월 카이로 해방광장(Nidan Tahrir)에 모여 빵 부족 해결을 촉구하는 ‘코샤리 혁명’을 전개해갔다. 이 요구와 외침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를 요구하며 30년간 집권한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로 바뀌었다. 그 노력으로 결국 2011년 2월 11일 무바라크 축출에 성공하면서 이웃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하여 중동지역 국가에 민주화^f 요구하는 트리거(trigger)가 되어 소위 ‘아랍의 봄(Arab Spring)’이라는 X-이벤트가 발생하였다(장훈태, 2021). 그 여파로 오늘날까지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권 교체, 내전과 같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여 난민, 테러 등의 다양한 신흥안보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황병하, 2011).

<그림 4> 2010/11년 세계식량위기 분석 결과



15) 튀니지 국립통계국의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 튀니지 실업률은 13.3%로 마그레브 지역(아랍어로 해가 지는 지역이라는 뜻으로, 모로코·알제리·튀니지를 아우르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한다)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므나스리·천경록, 2011). 2010년 기준으로는 튀니지 실업률 14%로 더 상승하였고, 이집트도 13%로 높은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2020/21년 세계식량위기

1)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2020/21년 세계식량위기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으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세계식량위기 논의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에 따른 식량 생산, 공급, 수출 문제와 식량 무기화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어 2020년 3월 11일,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¹⁶⁾으로 공식 선언되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3.13.). 각국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봉쇄, 이동 제한(lock down)을 시행하였고, 그 여파로 노동자들의 생산 활동 감소에 따른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세계 투자자들의 안전 자산 선호 현상, 달러화 가치하락,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갈등 발생¹⁷⁾, 식량 수출입 이동의 제약 및 살충제 접근성의 악화로 작물 보호가 어려워지면서 국가 간 ‘식량 확보전’의 양상이 나타났다(김상배, 2020; 김영훈, 2020). 즉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보건안보 위기가 지정학적, 양질전화, 이슈연계 임계점을 넘어 세계식량위기로 전개된 것이다. 이에 식량가격지수가 2021년 1월 124.2로 2014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FAO, 2020a; Vasili·Tianming, 2020; WEP, 2020).¹⁸⁾

2)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 적절한 대응과 관리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2020년 3월 26일 G20 정상회의에서부터 세계식량위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FAO, 2020b). 회원국들은 지난 세계식량위기 발생 당시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식량 가격 급등, 가격 변동성 확대, 식량 부족 현상 등의 식량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면서 선제적으로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 기제를 작동시킨 것이다. 2020년 4월 22일 WTO 회원국들은 각국의 개별 조치가 식량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식량안보 및 영양 공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하였다. △열리고 연결된 공급망 보장, △수출할 식량의 국내 비축량으로의 전환을 제한, △농식품 및 농자재 수출제한 자제, △WTO에 무역 관련 코로나-19에 대한 조치의 즉각적인 통보, △기타 국제기구의 활동 지원 등이 그것이며, 폭넓은 지지를 통해 승인되었다(WTO, 2020; 임송수, 20

16) WHO의 전염병 경보단계는 6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동물 사이 한정된 전염, 2단계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상태, 3단계는 사람들 간 전염이 증가한 상태, 4단계는 사람들 간 전염이 급속히 퍼져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상태, 5단계(epidemic)는 전염이 널리 퍼져 세계 동일 권역의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여 세계적 유행병 대유행이 임박한 상태, 6단계(pandemic)는 다른 권역의 국가에서도 추가로 전염이 발생한 상태이다(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17) 러시아가 석유수출기구(OPEC)와 합의를 철회했고, 이에 사우디는 보복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면서 유가 하락 모멘텀(momentum)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석유갈등은 이미 존재하던 탈석유화의 구조적 변동 압력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 및 지구적 석유소비 감소에 의해 그 효과가 증폭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김상배, 2020).

18) 옥수수, 대두, 소맥, 쌀 가격 상승률은 각각 78.10%, 57.87%, 31.16%, 8.84%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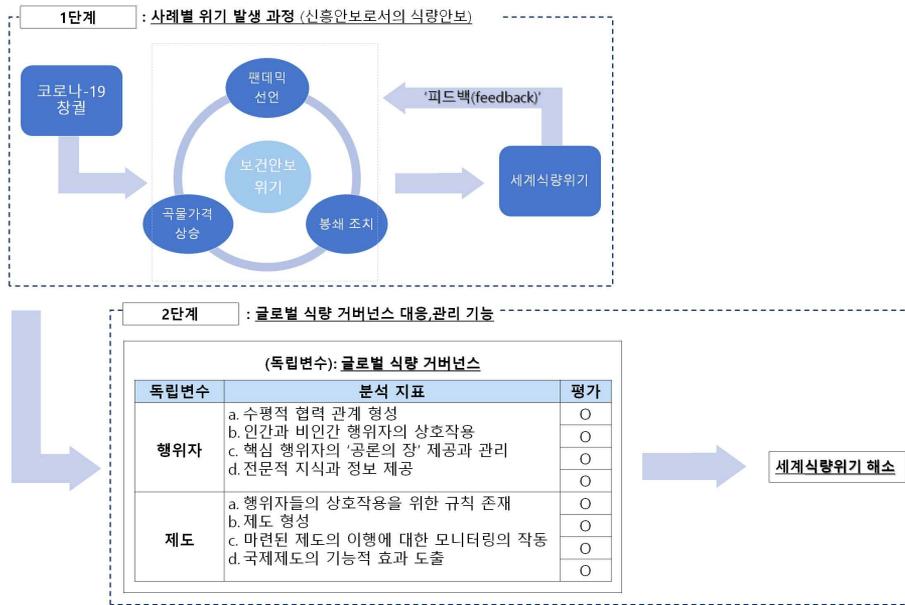
20).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엔은 세계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 분석을 통해 코로나-19가 전 세계 식량, 가치 사슬, 식량 가격,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구현하였으며,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 이 프레임워크가 행위자들의 투표로 승인되면서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행위자들이 전략적 프레임워크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시행되었다.

3) 결과: 세계식량위기 해소 및 지속적인 대응 관리의 필요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의 효과적인 대응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 2007/08년 세계식량위기 당시 33개국이 식량 수출제한이나 금지조치를 발표한 것과 비교하여 보다 적은 수인 총 22개국만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무역 규제 조치 대상 품목의 열량으로 비교하면, 2007/08년 18.8%에서 2020/21년에는 5.2%에 그쳤다. 수출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7/08년에는 9개국이 식량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2020/21년에는 어떤 국가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세계식량가격은 2007/08년과 2010/11년 식량 가격 급등 기간에 도달한 수준에 가깝게 상승했지만, 안정적인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즉 이전의 세계식량위기 상황에 대한 학습효과로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가 초기 대응 및 효과적 관리의 기능을 수행하여 이 위기를 해소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태의 전개 양상 및 전망을 단언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김규호, 2020).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량 공급 시스템의 불확실성과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금융, 물류, 생산, 시장, 보건 등의 이슈와 복잡한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킬지 선부르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2022.05.22. 기준)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연히 주요 밀, 옥수수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의 생산 차질을 빚으며 공급망 붕괴, 수출 제한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쟁이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비료 수출을 중단하고 흑해 항구를 봉쇄함으로써 식량 무기화 전략을 수행함에 따라 세계식량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세계곡물가격이 상승하였고, 그 대응으로 인도는 밀 수출 중단,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금지 등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수많은 국가들이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곡물 및 식량 가격은 더욱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NEWSIS. 2022.05.21.). 그 여파로 스리랑카에서는 소요 사태가 발생하여 총리가 사임하였으며, 이란에서는 식량 시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식량 문제 및 세계식량위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 관리의 수행은 필수적이다.

<그림 5> 2020/21년 세계식량위기 분석 결과



V. 결론

본 연구는 세계식량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의 적절한 대응이 ‘신홍안보’ 위기 발생을 막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신홍안보 이론을 원용하여 2007/08년, 2010/11년, 2020/21년 세계식량위기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계식량위기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메커니즘과 동학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신홍안보 관점에서 구체적인 식량안보 현실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가 각각의 사례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행위자 및 규범을 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세계식량위기 사례들은 모두 각기 다른 신홍안보적 이슈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08년 세계식량위기는 금융문제가 발생하면서 복잡한 네트워크 배경에서 다른 신홍안보 이슈들과 함께 연계되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식량위기가 발생하였다. 2010/11년 세계식량위기는 기후문제가 발생하면서 주요 곡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출제한금지를 시행하여 식량에 대한 불안정, 투기, 높아지는 식량 가격으로 다른 분야의 안보 영역과 결부되면서 세계식량위기가 발생하였다. 2020/21년 세계식량위기는 코로나-19 창궐과 전 세계적 유행에 따른 WTO의 팬데믹 선언으로 각 국가들이 방역을 문을 걸어 잠그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 생명의 위협에 따른 불안감 등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식량 가격 역시 상호작용하면서 세계식량위기가 발생하였다.

또한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가 2007/08년 세계식량위기 상황에서는 대응 및 관리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후조치적 노력이 전

개되었다. 그 노력으로 2010/11년 세계식량위기 상황에서는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제도를 형성하려 했으나,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여 결국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2020/21년 세계식량위기 상황에서는 두 차례 세계식량위기를 경험하면서 역량을 보완한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가 초기부터 해당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히 기능을 함으로써 세계식량위기를 해소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앞선 사례들과 달리, X-이벤트 또는 새로운 신종안보 위기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날 다양한 배경과 원인으로 연쇄적으로 발현되고 동시에 초국적으로 발생하는 세계식량위기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국의 식량안보 위기들을 대응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 모델을 통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독과점 및 얽은 시장의 형태 구조는 식량 가격이 상승할 때 개도국과 최빈개도국(LDCs: Least Development Counties)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세계식량시장의 변화를 이뤄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기타

- Collier, P., et al.(2003) “Breaking the Conflict Trap: Civil War and Development Policy” , Oxford University Press.
- Dietrich Domanski., & Alexandra Heath(2007), “Financial investors and commodity markets” , BIS Quarterly Review.
- ERS(2012),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2012-2022” .
- FAO(2008a), “Soaring Food Prices: Facts, Perspectives, Impacts and Actions required” , High-Level Conference on World Food Security: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and Bioenergy.
- _____ (2008b),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 Rome, FAO.
- _____ (2020a), “Food Outlook. Biannual Report on Global Food Markets” , June 2020.
- _____ (2020b), “Mitigating impacts of COVID-19 on food trade and markets: Joint Statement by Directors-General of FAO, WHO and WTO” , News archive 2020 (3.31).
- Gilbert., & Morgan(2010), 『Food price volatility』.
- Lester Brown(2008), “Why Ethanol Production Will Drive World Food Prices Even Higher in 2008” , Earth Policy Institute, January 24, 2008.
- NEWSIS. “11월 세계 식품가격, 6년만에 최고..코로나가 식품가 올려.” (2020.12.04.) (검색일:2020.12.06.)
- Schanbacher W. D(2010), “The Politics of Food: The Global Conflict Between Food Security and Food Sovereignty” , ABC-CLIO.
- UN(1995),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1995.”
- USDA., & ERS(2017), “Progress and Challenges in Global Food Security” ,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175.
- WFP(2020), “COVID-19 Will Double Number of People Facing Food Crisis Unless Swift Action Is Taken” , April 21, 2020, (<http://t2m.kr/MfFCr>).
- White House(2010),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Washington, DC: White House.
- World Bank(2008), “Double jeopardy: responding to high food and fuel prices” , Paper presented at the G8 Hokkaido-Toyako Summit. 2. July, Retrieved October 30, 2018.
- _____ (2009),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9” , Washington DC.
- 김상배(2013), 『사이버 공간의 글로벌 지식질서: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구조와 동학의 이해』, 국가전략. 19(3). 75-109.
- 김상배(2016), 『신흥안보의 미래전략: 비전통 안보론을 넘어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7, 사회평론.
- 김상배, 신범식(2017), 『한반도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 사회평론.
- 두산백과, 매일경제용어사전. “서브프라임”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3.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오늘의 세계경제.
- 사회진보연대(2008), “광우병, 한미FTA와 민중의 식량주권” , 사회진보연대.
- 서종석(2008), “[세계를 휩쓰는 식량위기]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 - 세계는 지금 식량과 전쟁 중” , 민족21, 124-127.

삼성경제연구소(2010),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식량 공급불안, 한국경제를 위협하는가?’ ” .
 임송수(2020), “코로나-19가 국제 식량 수급과 무역에 미친 영향” ,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
 외교부 사이트.
 조선비즈(2010.08.10.), “러시아(세계 3대 밀 수출국), 가뭄·산불에 신음… 세계 곡물파동 오나” ,
 환경 경제용어사전, “WHO 전염병 경보 5단계” .
 한국은행(2012. 09), “국제곡물가격의 급등 요인 및 평가” .

- 논문

- Anderson. Kym. & Rod Tyers(1990), “How developing countries could gain from world food trade liberalization in the Uruguay Round” , 「In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ed. Ian Goldin and Odin Kundsén」 .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World Bank.
- Anderson, K(2000), “Agriculture’s ‘multifunctionality’ and the WTO” , 「The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 44:3, 475-494” .
- Ardic, N(2012), “Understanding the ‘Arab Spring’ : Justice, Dignity, Relig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 Afro Eurasian Studies, 1(1), 8-52.
- Bellemare, M. F(2014), “Rising food prices, food price volatility, and social unrest” ,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 96(4), 1-21.
- Ben Ross(2016), “Agriculture Markets Brace for La Nina” , How Mother Nature May Push Father Time to Speed the Recovery in Crop Prices, Cohen&Steers.
- Berazneva, J. & Lee, D(2013), “Explaining the African food riots of 2007-2008” , An empirical analysis, Food Policy」 , 39, 28-39.
- Besley, T. & Persson, T(2008), “The Incidence of Civil War: Theory and Evidence”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 No. 14585, Cambridge, MA.
- Bonner Bill. & Wiggin Addison(2006), “Empire of Debt: the Rise of an Epic Financial Crisis” , Wiley, Hoboken.
- Brinkman, H. & Hendrix, C. S(2011), “Food insecurity and violent conflict: Causes, consequences, and addressing the challenges” , Unpublished manuscript.
- Breisinger, C., et al.(2015), “Conflict and Food Insecurity: How Do We Break the Links?” , Retrived October 17, 2018.
- Burch, D. & G. Lawrence(2009), “Towards a third food regime: behind the transformation” ,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26(4), 267-279.
- Bush, R. & G. Martiniello(2017), “Food riots and protest: Agrarian modernizations and Structural Crises” , World Development, 91, 193-207.
- Castells, Manuel(2004),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3-48.
- Calzadilla, A., et al.(2011), “Water scarcity and the impact of improved irrigation management: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 Agricultural Economics, 42(3), 305-323.
- Clapp, J. & Helleiner, E(2012), “Troubled futures?: The global food crisis and the politics of agricultural derivatives regulation” ,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9(2),

- 181-207.
- David Kenner(2011), "Oil, Guns, and Money: Libya' s Revolutions Isn' t Over" , Foreign Policy, December, 21.
- David P. Filder(2010), "The Challenges of Global Health Governance"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orking paper, New York.
- Devereux, S., & Maxwell, S(2001), "Food security in sub-saharan africa" , London: ITDG Publishing.
- Frankel, J., & A. K., Rose(1996), "Currency Crashes in Emerging Markets: An Empirical Treatment"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41.
- George Joffe(2011), "The Arab Spring in North Africa: Origins and Prospects." , POLIS, University of Cambridge in Adebajo A., & Whiteman K.(eds)(2011), The EU and Africa: from Eurafrique to Afro-Europa, Hurst and Co. (London).
- Godfray, H. C., et al.(2010), "Food security: The challenge of feeding 9 billion people." Science, 327(5967), 812-818.
- Gordenker, Leon., & Thomas Weiss(1996), "Pluralizing Global Governance: Analytical Approaches and Dimensions." In Weiss& Gordenker(eds), NGOs, the UN, and Global Governance. Boulder: Lynne Reinner.
- Greenfield, J., et al.(1996),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Food Securit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 Food Policy, Vol.21, No.4/5, 365-375.
- Hendrix, Cullen S., & Idean Salehyan(2012), "Climate change, rainfall, and social conflict in Africa" , Journal of Peace Research, 49(1), 35-59.
- Hendrix, C., & Brinkman, H(2013), "Food insecurity and conflict dynamics: Causal linkages and complex feedbacks" , St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ecurity and Development, 2(2), Art. 26.
- Keohane, Robert O., & Lissa L. Martin(1995), "The Promise of Institutional Theory" , International Security, 20(1), 39-51.
- Knight(1999), "Engineering Space in Global Governance: the emergence of Civil Society in Evolving New Multilateralism." 『Future Multilateralism; The Political and Social Framework』 . 『Tokyo: UN University Press』 : 255-289.
- Krissoff, B., & Trapido. P(1990), "Food and Agriculture policy reform-the case of venezuela" , I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72, No.5.
- Lagi, M., et al.(2011), "The Food Crises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 Retrived October 25, 2018.
- Lang · Barling(2012), "Food security and food sustainability: reformulating the debate" , The Geographical Journal, 178(4), 313-326.
- Natalini, Davide., et al.(2014), "Global food security and food riots: an agent-based modelling approach" , Global Sustainability Institute, Anglia Ruskin University, East Road, Cambridge CB1-1PT, UK;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Linnaeus University, Universiteesplatsen 1, 35195.
- Niall Ferguson., & Moritz Schularick(2007), " 'Chimerica' and Global Asset Markets" , International Finance, 10(3), 215-239.

- Margulis, M. E(2014), “Trading out of the global food crisi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geopolitics of food security” , *Geopolitics*, 19(2), 322-350.
- Maystadt, J-F, et al.(2014), “Does food security matter for transition in Arab countries” , *Food Policy*, 46, 106-115.
- Minot, N(2010), “Transmission of World Food Price Changes to Market in Sub-Saharan Africa” , Unpublished research report,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Washington, DC.
- Murphy, S., et al.(2012), “Cereal secrets: The world’s largest grain traders and global agriculture” , Oxfam research reports.
- Ohga., & Keiji(1998), “World 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Trade” , OECD, October.
- Olivier, D. S(2010), “Food Commodities Speculation and Food Price Crises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 Briefing Note.
- Rachman, Gideon(2011), “Think Again: American Decline. This Time It’s for Real” , *Foreign Policy*(January-February).
- Raleigh, C., et al.(2015), “The devil is in the details: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onflict, food price and climate across africa” , *Global Environmental Change*, 32, 187-199.
- Roe, Terry., & Munisamy Gopinath(1996), “World Trade Issues and Food Security” , Center for International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Working Paper, P96-2, Univ. of Minnesota.
- Rosegrant, M. W., & Cline, S. A(2003), “Global food security: Challenges and policies” , *Science*, 302(5652), 1917-1919.
- Schmidhuber, J., & Tubiello, F. N(2007), “Global food security under climate change” ,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4(50), 19703-19708.
- Sumner. D. A(2000), “Agricultural trade policy and food security” ,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conomist Workshop on Food Security Berlin, Aug. 2000.
- Timmer. C(2000), “The Marco Dimenstions of Food Security: Economic Growth” , *Eauitable Distribution and Food Price Stability*, *Food Policy*, Vol.25 Issues.3, 283-295.
- Todd Graham Smith(2014), “Feeding unrest: Disentangl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ood price shocks and sociopolitical conflict in urban Africa” , *Journal of Peace Research*, 51(6), 679-695.
- Vasili Erokhin., & Tianming Gao(2020), “Impacts of COVID-19 on trade and Economic Aspects of Food Security: Evidence from 45 Developing Counties” ,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 von Braun, J(2008a), “The World Food Crisis: Polit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and Needed Actions” , Presentation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ockholm, Sweden, September 22.
- Winders, B(2011), “The food crisis and the deregulation of agriculture” , *The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18(1), 83-95.
- 공민석(2018),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중심으로” , 「국방연구」 제61권 제2호, 1-28.

- 김규호(2020), “코로나19 발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과제”, 「이슈와 논점」, 1703호 (국회 입법조사처, 2020년 4월 27일).
- 김명환 외 2인(2008), “식량안보문제의 발생가능성과 대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배(2015), “신흥안보의 부상과 과학기술의 역할”, Issue Paper. 2015-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_____ (2020a), “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과제”, 「이슈와 논점」, 1703호, 4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
- 김영훈(2020), “코로나19와 북한의 식량,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1), 3-15.
- 김태훈, 승준호(2009), “신호접근법을 이용한 국제곡물가격 조기경보시스템”, 「농촌경제」 32(3), 71-84.
- 김호탁(2003), “WTO출범과 우리나라 식량안보”, 「농업경제연구」 44(1), 65-89.
- 민병원(2007),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네트워크 패러다임”, 「국방연구」 50(2), 23-56.
- 박광기(2016), “복잡계이론을 통한 북한 핵문제 대응방안 연구”, 「정치정보연구」 1(19), 81-107.
- 박영택(2020), “비전통 안보문제의 확장과 국제기구의 다자적 기능 평가”, 「접경지역통일연구」 4(2), 139-162.
- 삼세디네 므나스리, 천경록(2011) “튀니지의 민중 혁명”, 「마르크스21」 (9), 117-142.
- 유종선(2013), “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66), 257-277.
- 유호근(2014), “비전통안보 이슈로서 식량안보”, 「국정관리연구」 OUGHTOPIA 29(2), 127-152.
- 이명훈 외 2인(2012), “식량위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농촌경제」 제35권 제3호, 61-86.
- 이재욱(1999), “21세기 세계 식량수급의 전망과 과제”, 99하계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 1998.08, 75-96.
- 임성학 외 3인(2007),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통일연구원」.
- 장훈태(2021), “튀니지 시민혁명 10주년 이후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고찰”, 「아프리카학연구」 제1권 제1호, 1-28.
- 조정인(2019), “세계 식량위기의 정치경제학: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원인 그리고 촉발원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5(2), 63-98.
- 최세균, 권오복(1991), “농산물 무역정책 자유화에 딸는 국제농산물가격 변동과 그 함축성”, 「농촌경제」 Vol.13 No.3.
- 최영종(2012), “국제금융의 정치경제: 글로벌 위기와 그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9집 2호, 165-175.
- 황병하(2011), “‘아랍의 봄’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문학과 사회」 24(2).